

이 제 나 는 , 유 리 병 , 동 파 이 프 , 고 목 벌

레 , 붉은 벽돌 , 거 미 줄 , 안 개 , 비 상 구 , 집

꼭꼭 숨어 있었을까?

시 , 세 탁 소 , 푸 른 항 구 , 불 난 집 , 가 방 ,

불난집? 화재장소를 지나간 걸까? 가장 이란적이 시이다.

곤 떨 어 진 과 러 미 , 자 동 차 , 사 라 진 구 름 ,

발 발 발 , 밤 밤 밤 .

밤이 되면 하늘이 어두워져서
구름이 잘 만보이는 것을
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.

박 상 준 , ㅏ 발 리 건 다 ,

'발'에 겹글리며 '발리 건다' 보니 '밤'이 찾아왔다는 해석이 마음에 들었다.

혼자 이 시를 봤으면 무슨 시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, 수업 시간에 배워서 앞으로 이런 류의 시를
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.

'발'의 'ㄴ'에서 'ㄹ'으로 흐르고, 연결되는 듯한 소리가 'ㅁ'의 잔하고 종결되는 듯한 소리로 바뀌는
것이 재밌었다.

2021.05.14